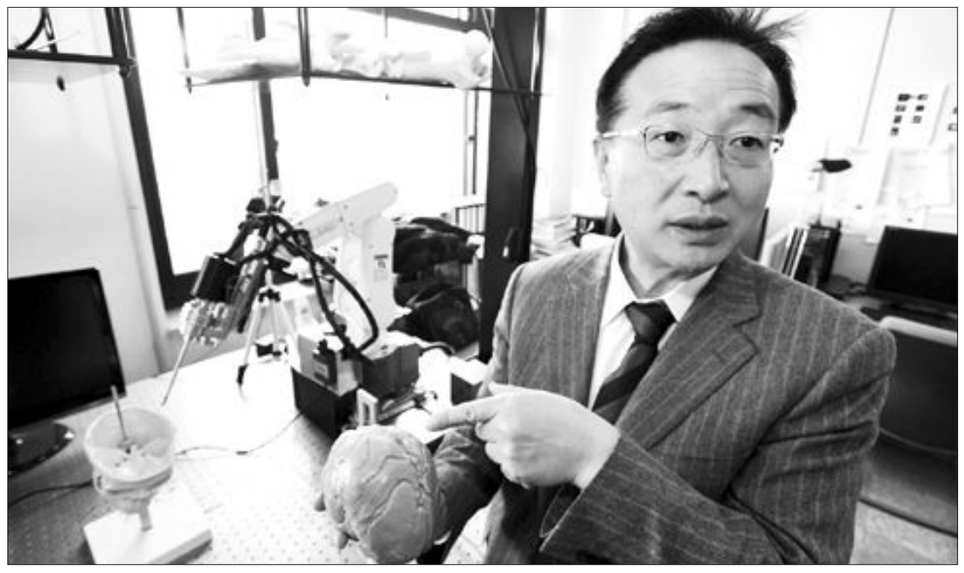
2010 희망일기

① '로봇박사' 박종오 전남대 교수

세계 최초 '혈관로봇' 4월 첫선 심장질환 환자들에 '희망' 선물



박종오 교수가 전남대 로봇연구소에서 현재 개발중인 뇌암 수술 의료용 로봇의 수술 기법과 작동 원리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혈관 따라 움직이며 혈전 등 제거
가슴 따뜻한 로봇…가치는 무한대

매년 기발한 로봇으로 세상을 놀라게 했던 '로봇박사' 박종오(56·전남대 로봇연구소장) 교수가 올해는 '희망로봇'을 만들어 발표한다.

30년 동안 로봇과 함께 살아온 박종오 교수는 요새 날마다 같은 꿈을 꾼다. 심장질환에 고통받는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로봇을 완성하는 꿈이 그것이다.

박종오 교수는 오는 4월 국내외 신문·방송·통신 등을 상대로 대규모 기자회견 및 발표회를 가질 예정이다. 지난 2007년부터 연구해 온 세계 최초의 '혈관로봇'(혈관치료용 마이크로로봇)이 드디어 선보이는 것이다. 그날을 위해 박 교수는 매일 새벽까지 실험에 몰두하고 있다.

초소형 마이크로로봇인 혈관로봇은 혈관을 따라 움직이며 치료해야 할 혈전 등의 목표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박 교수가 처음 혈관로봇 연구 계획을 발표했을 때만 해도 로봇 전문가들은 물론 의학계에서 조차 "불가능하다"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었다.

하지만 지난 3년 간의 연구 결과들이 하나 둘 알려지자 세계 각국의 로봇 전문가들이 박 교수에게 혈관로봇 연구에 뒤늦게 참여가 가능한지를 타진하고 있다. 의료용 로봇은 부가가치가 아주 높지만 사망 원인 1위가 심혈관질환인 탓에 혈관로봇의 개발은 무한대의 가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또 그의 연구를 전해들은 일부 심장질환자들은 자신을 임상 대상으로 활용하거나 로봇 완성 후 시술을 받게 해달라는 간절한 소망을 전달해오기도 했다.

박 교수가 혈관로봇에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의료용 로봇은 여타의 로봇이나 기계 보다 부가가치가 높아 의료기기 분야에서 국가경쟁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장질환에 고통받는 환자들을 도울 수 있는 '가슴 따뜻한 로봇'이기 때문이다.

"저는 아직 철이 덜 들어서인지 매일 꿈을 꿉니다. 쉰 여섯밖에 안 돼서(웃음)…. 원하고 바라고 희망하는 것은 의지만 강하면 반드시 이룰 수 있습니다.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현재에 충실하면 미래는 자연히 열립니다."

박 교수는 독일 슈투트가르트대에서 로봇공학 박사를 딴 뒤 공장자동화 기술, 지능형 산업로봇, 가전로봇, 의료용 마이크로 나노로봇을 주로 연구해 왔다.

박 교수는 한국인 최초로 2006년 국제로봇공학연맹(IFR) 회장직을 역임했으며, 현재 이 연맹 한국대표 및 집행위원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박 교수의 히트작은 역시 화초로봇(가전)과 박테리오봇이다. 2008년 개발한 화초로봇은 인테리어 기능과 애완용 기능을 가진 로봇으로, 사람의 움직임이나 조명 등에 따라 반응할 뿐만 아니라 가전의 기능도 복합적으로 겸비하고 있다.

박테리오봇은 박테리아와 초소형 첨단 마이크로로봇을 결합, 인체에 투입시 암세포를 추적해 약물을 방출시키는 로봇으로 세계 의료용 로봇시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전남 폭설

낙상·교통사고 속출…해맞이 행사 잇단 취소

구랍 30일부터 광주·전남지역에 내린 눈이 밤새 얼어붙으면서 31일 출근길 교통 정체와 함께 교통사고와 낙상(落傷)사고 등 피해가 잇따랐다.

◇**잇단 교통사고**=구랍 30일 밤 11시18분께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 광주교육연수원 삼거리 빙판길에서 승용차가 미끄러지면서 삼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신모(여·51)씨 등 2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같은 날 오전 8시55분께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주암휴게소 부근에서는 눈길에 미끄러진 트레일러가 앞서 가던 트레일러를 들이받아 대형 컨테이너 2개가 도로 위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 차량 운행에 큰 차질을 빚는 등 10여건의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랐다.

◇**낙상 환자**=조선대병원과 전남대병원 등에는 빙판길 낙상으로 손목이나 턱이 다친 환자들이 잇따랐다. 구랍 31일 오전 7시52분 광주시 남구 방림동 주택가 골목길에서 출근 중이던 양모(여·47)씨가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팔목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뒤 퇴원했다.

앞서 이날 오전 7시6분 남구 송천동에서 양모(여·26)씨가 눈길에 넘어져 오른쪽 발목 부상을 입었으며, 전날 오후 5시56분 담양군 대덕면 문한리 송모(65)씨가 눈길에 미끄러져 골절상을 입는 등 이틀간 10여건의 낙상사고가 일어났다. 이번 폭설로 광주시 북구 삼각산과 남구 금당산 등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해맞이 행사가 잇따라 취소됐다.

한편,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구랍 30일부터 31일 오전 10시 현재까지 광주·전남지역에 내린 눈은 광주가 14.8㎝로 가장 많았으며, ▲순천 9.6㎝ ▲진도 3㎝ ▲완도 2.5㎝의 적설량을 기록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오늘 오전까지 눈…당분간 추위

광주·전남지역은 1일 오전까지 곳에 따라 눈이 내리겠으며, 신정 연휴 사흘동안 대체로 흐린 날씨가 예상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일 광주·전남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으며, 서해안지방을 중심으로 오전까지 눈이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다. 예상 적설량은 영광, 함평 등 서해안지역 3~10㎝, 그 밖의 지역은 1~5㎝.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9도~영하 3도, 낮 최고기온은 0~4도다.

2일과 3일 광주·전남은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겠다. 4일부터 7일까지는 낮 기온이 영하권으로 뚝 떨어진 가운데 눈이 이어지겠으며, 추위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형호기자 khh@

조선대 정이사체제 출범

교과부, 이사 7명 선임 통보

교육과학기술부가 구랍 31일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이사 7명을 선임해 조선대에 통보했다.

선임된 이사는 강현욱 국무총리실 새만금위원회 공동위원장, 남궁근 서울산업대 교수, 김용억 동신대 교수, 김택민 고려대 교수, 강창원 변호사, 이원구 SM성형외과 원장, 박성숙 신경정신과 원장 등이다. 이사 임기는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나머지 2명에 일단 종전이사측의 추천를 받아 선임한다는 입장이며, 종전이사측이 추천하지 않을 경우는 이사회 등에서 자체 선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회 첫 회의는 오는 14~17일에 열릴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이사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신임 이사장에는 7명의 이사 중 행정 경험이 많은 강현욱 국무총리실 새만금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유력시되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나원참 〈7994〉 김종두

강진서 식당 화재 모녀 부상

구랍 31일 새벽 4시40분께 강진군 강진읍 A(여·68)씨의 식당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나 내부 120㎡를 태우고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식당 방에서 잠을 자던 A씨와 딸(29)이 팔 등에 화상을 입었다. 경찰은 A씨 모녀를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새해에도 어두운 곳 빛이 되겠습니다

쌍나팔

○…'나팔쇠'가 2010년 경인년(庚寅年) 새 아침을 맞아 삼가 새해 인사드리며, 올 한해 독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즐거움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지난해 사회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며 독자의 눈과 귀가 되고자 했던 '나팔쇠'는 새해에도 세상 어두운 곳에 빛이 되고, 약하고 소외받는 이웃들의 벗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경제난으로 인해 서민들의 생활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새해에도 밝고 희망찬 소식과 감동이 넘치는 우리 이웃의 이야기를 전하는 '나팔쇠'가 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독자 여러분, '나팔쇠'가 언제 어디서나 정의와 자유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쌍나팔'을 온누리에 울릴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사회1부

康衢煙月(강구연월)

교수신문, 2010 새해 희망 담은 사자성어
태평성대의 풍경…"분열·갈등 해소 기대"

2010년 새해의 희망을 담은 사자성어로 '강구연월'(康衢煙月)이 선정됐다.

교수신문은 각 대학 교수, 일간지 칼럼니스트 등 지식인 2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강구연월'이 새해 사자성어로 뽑혔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강구연월'(편안 강, 네거리 구, 연기 연, 달 월)이란 '번화한 거리에 달빛이 연기에 은은하게 비치는 모습'을 나타낸 말로, 태평성대의 풍요로운 풍경을 묘사할 때 쓰인다.

'강구연월'을 희망의 사자성어로 추천한 단국대 김상홍 교수(한문학)는 "지도층은 요 임금처럼 국민에게 강구연월의 세상을 만들어 줄 책임과 의무가 있다. 새해에는 분열과 갈등이 해소되고 강구연월의 시대가 열리길 기대한다"고 추천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떠오르는 태양처럼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십시오
2010년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4월 10일 /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3월 27일
전남지방직 9급 5월 22일 / 전남지방직 7급 10월 9일
압도적 1위 한빛!
7·9급 공무원 합격 수구권 비결 특강
개강 1월 4일(종합/단과 주말/야간반 모집)
시작이 빠르면 합격도 빠르다!
학원 선택이 합격을 결정한다!! 합격하고 싶다면 한빛고시학원을 통하라!!
소방직 전문 학원 소방체력측정기 무료제공
마감유의 현재수강접수중
한빛고시학원
광주 북구청앞
(062) 234-0234